

순창군, 내년도 본예산 5747억원 편성

전년 대비 436억원 증가… 농어촌기본소득·사회복지 등 중점 편성

순창군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5,747억원 규모로 편성해 순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436억원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포함한 국도비 증가에 따라 본예산 기준 순창군 역사상 처음으로 5,700억원대를 달성했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5,568억원, 특별회계 179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20%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6.48% 감소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1,289억원, 농림해양수산 1,034억원, 일반공공행정 748억원, 환경 506억원 등으로

배정됐다.

군은 상·하수도 시설정비 등 생활 밀착형 사업과 재난재해 예방,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순창 조성에 집중했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비 증액과 교육,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전국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총 420억원 규모로 실거주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 선도적 정책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농촌 인구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군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순창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며 “음·면 균형 발전과 군민 행복지 실현을 통해 순창의 미래를 보장하는 첫걸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순창군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덕치면 복지회관 새 단장

지역공동체 중심 재탄생

임실군 덕치면 복지회관이 지역공동체 중심의 여가와 문화, 복지 등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덕치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 준공식이 덕치면 복지회관 야외마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진관 임실 부군수와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박정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복지회관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덕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협



임실군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덕치면 복지회관 증축 공사’ 준공식이 덕치면 복지회관 야외마당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남원시, K-방제 드론 전문가 양성 2기 교육과정 운영

남원시는 지역 드론 운용·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지역 드론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21일간 K-방제 드론 전문가 양성 2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기 과정은 농업·산림·환경 방제 분야에 특화된 K-방제 드론 1종 전문

가 교육’으로 기획·추진되었고, 실천 중심의 커리큘럼을 한층 강화해 지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조종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기 교육과정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비행운용 △방제 드론 △운용 및 안전관리 △재난·방제 실습 등 총 7개 과목으로 운영되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150kg

이하 기체를 대상으로 진행, 교육 장소는 1종 자격 인증 교육기관인 알파드론 무인항공교육원으로 드론 실습을 위한 장비·교육장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전문 교육기관이다.

남원시와 호원대학교는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으며, 본 교육은 교육부·호원대학교·남원시가 연계해 운영하는 국비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국 소방가족 힐링캠프 개최

남원시, 26~28일 심신 회복·재충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는 소방청 및 저스피스 재단, 해피빈 기부자들이 후원하는 따뜻한 하루와 함께 2025년 전국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국에서 선발된 35가족 140명의 소방공무원과 가족이 참여해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남원시는 소방청·전북소방본부와 협력해 소방 관련 행사와 치유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소방 치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으며, 2024년 시작된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힐링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소방안전캠프, 소방가족 대상 치유캠프 등 대상을 넓혀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방가족 힐링캠프는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사고, 대형 산불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부담을 겪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일상 회복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남원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계기로 소방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례적 소방 치유 프로그램 유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힐링 콘텐츠 개발, 가족 중심 프로그램 고도화 등 소방 분야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캠프에서는 남원의 자연·문화·치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춘 선택형 맞춤 프로그램(가이드북 기반)을 제공해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저스피스 재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 저스피스 재단은 올해 4월, 지드래곤의 산불 피해 지원 기부금을 기반으로 소방관 지원 프로젝트 ‘영웅 회복’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9월부터 소방관과 가족들의 마음 건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저스피스 재단은 앞으로 남원시와 소리 문화 기반을 활용한 소리 치유 콘텐츠의 개발·적용에 대한 협업을 함께 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북 자치경찰 연관사무 평가 ‘우수’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자치경찰 연관사무’ 평가에서 도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추진한 자치경찰 사무 실적과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군은 ‘자율방범대 인센티브 포인트제’를 운영해 방범대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를 높여 지역 치안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3

개 우수 시군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제도는 야간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를 지역사회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범대원들은 이를 활동 지원이나 물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하반기 제도를 본격 도입한 이후 방범대 참여율과 활동 실적 수준을 함께 끌어올렸으며, 순창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 대상자 발굴과 활동 활성화에 힘썼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의소, ‘마음쉽표 미용실’ 운영

남원시보건의소(소장 한용재)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지영)는 시민의 정신건강 교원협군 조기 발굴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11월부터 관내 미용업소 10개소와 협약을 맺고 ‘우리동네 마음건강 상담실·마음쉽표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쉽표 미용실’은 미용실을 단순히 머리를 손질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정신건강을 살필 수 있는 ‘생활 속 상담 공간’으로 확장한 지역 맞춤형 사업이다. 미용실 방문 시민은 마음건강 자거검



진(QR)과 정보를 쉽게 접하고 필요시 전문 상담 및 치료 기관으로 연계되며, 종사자는 기본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위기 징후 발견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대 증차

임실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1대를 추가로 증차했다.

이번 증차로 임실군은 법정 대수인 8대를 확보하게 되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개조 차량으로, 보행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지역적 제한 없이 필요에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새 차량의 안전 점검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임실군은 2013년부터 민간단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를 위탁해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5년 3월 운전원 서비스 만족도 1위를 달성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구급차 동승 실습 실시

남원소방서는 25일 응급의료 지도의사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구급차 동승 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속한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현장의 다양한 응급 상황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이번 실습을 통해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남원소방서는 전했다.

남원의료원 응급의학과 최새벽 교수는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현장 경험이 더해짐으로써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지역 사회의 응급의료체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